

청산별곡의 ‘가던새’에 대하여

고 정 의*

1. 머리말

청산별곡은 서경별곡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고려가요 작품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노래 역시 일부 고려 가요들과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한 해석에 이르지 못해 다양한 해석을 낳아 왔다. 그 동안 이 노래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학적인 면에서 이루어졌고¹⁾, 어학적인 것으로는 양주동(1947) 이래 김형규(1967), 박병채(1994) 등의 주석서들이나²⁾ 서재극(1968), 이승명(1975), 김완진(1966, 1971)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산별곡 해석의 쟁점은 주로 3연과 7연 그리고 8연의 어휘나 문의와 관련된 것이었다.³⁾ 이 중 3연에 대한 해석은 ‘임무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1) 김상억(1965), 성현경(1972), 이승명(1975), 정병욱(1977), 신동욱(1982), 김학성(1980), 윤강원(1983), 박노준(1990)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는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3) 다음 7, 8연에 대한 해석은 김완진(1966)과 김완진(1971)을 참고할 것.

7연 :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슴이 뿔대에 올라서 해금을
희거를 드로라

8연 :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오니 내 엇
디 호릿고

든 장글란'과 '물아래' 그리고 '가던 새'의 어석과 문의에 집중되었고, 논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⁴⁾ 이러한 차이는 '가던 새'의 해석 방법에 따른 것인데,⁵⁾ 그 동안의 논의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대립되어 왔다. 하나는 이를 '(날아)가던 새(鳥)'로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갈던(耕) 사례(이랑)'으로 본 것이다. 전자는 양주동(1946) 이래의 일반적 해석이고⁶⁾, 후자는 서재극(1968)에서 제시된 것으로 박노준(1990)에서 수용되었을 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⁷⁾ 이것은 3연의 '새'를 2연의 '새'와 연관해 보았고, 문헌에서 '흙(土)'의 의미를 띠는 형태소로 쓰인 '새'의 용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던 새'와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서재극(1968)을 제외하면 모두 '새'를 '새(鳥)'로 전제한 것들이어서, 3연의 문장구조상 무언가 미진한 듯한 느낌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가던 새'의 의미, 나아가 3연의 문맥 의미는 3연의 문장구조와 동사 '가지고'의

- 4)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2항과 3항을 참조할 것.
- 5) 정병욱(1984:107)에서는 3연의 해석이 다양한 원인을 “‘물아래’라는 어휘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가던 새’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2항과 3항 참조.
- 6) 양주동(1955)에서는 ‘새’에 대하여 주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 연의 ‘새여’에 대한 주석으로 미루어 2연의 ‘새’와 3연의 ‘새’를 동일시했음을 알 수 있다.
- 7) 서재극(1968:8)의 해석은 마땅히 주목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외로 간과되어 왔다. 그것은 아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해석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또 ‘사례>새’와 같은 음운변화 추정이 의문스러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것을 “갈던 사례(를) 본다”로 해석하려 한다. “사례(=이랑)”의 용례가 후대의 시조에 “사례·술래”로 나타날 뿐이나, 지금도 경상도에서는 고어 그대로 “사례(=‘고랑’ 내지 ‘이랑’)”을 쓰고 있으며, 표준어로는 “사례”를 “묘지기나 마름이 보수로 얻어서 부쳐 먹는 논밭(즉 ‘私耕’)이란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사례답·사례논·사례전·사례밭·사례밭·사례밭”로들 쓰고 있다. “사례답”을 경상도에서는 “사리답”이라고도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결국 “私耕”이란 주인 전답의 일부를 부쳐 먹는 것으로 몇 사례(=이랑)씩 떼어 주었던 데서 생긴 말인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례’가 ‘새’로 나타난 타문헌 용례를 찾아볼 수 없어서 확인키 어려우나, 다만 ‘누리(世)>누리(川)>내...’ 다위와 같은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다. 또 ‘밭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새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즉 ‘새(鳥)’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려 한다.”

통사 특징에 대한 분석·고찰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의 논의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3연의 문장구조와 '가지고'의 통사 특징으로 미루어 '가던 새'의 '새'는 '가던'의 목적어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 왔다.

본고는 이런 관점에서 3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⁸⁾ 재물보류의 어휘 중 '흙(野/土)'의 의미를 띠는 형태소로 '새'가 존재했었음을 암시하는 자료의 존재도 이런 시도를 뒷받침한다(3항 참조).

2. 3연의 구조와 동사 '가지고'의 의미 기능

청산별곡 3연은 어절 단위로 띄어 쓰면 다음과 같다(후렴은 생략).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연에 대한 그 동안의 해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장구조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던 새'의 어휘 분석 및 의미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8) 이러한 시도는 서재극(1968)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해석의 논거와 용례의 전거 및 의미에서 본고는 서재극(1968)과 성격을 달리한다. (주.7) 참조.

2.1. 청산별곡 3연은 문맥상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1) NP1(영무든 장글란)을 가지고 NP2(물아래 가던 새)를 본다.

위에서 보듯 3연에는 표면상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표면 구조로는 이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를 재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1)은 그 주술관계상 다음 (2)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1)의 주어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둘로 볼 수도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2) 1. NP₁을 가지고 NP₂를 본다
- 2. NP₁을 가지고 (NP₂를) 본다.
- 3. (NP₁을 가지고 NP₂를) 본다.

위에서 (2.1)은 문장의 주어가 하나인 경우로, 생략된 주어가 동사 ‘가지고’, ‘가던’ 그리고 ‘본다’와 주술관계를 이루는 경우다. 그러나 (2.2)와 (2.3)은 주어가 둘로, 괄호 안과 밖의 주어가 다른 경우다. 곧, (2.2)는 ‘가지고’와 ‘본다’의 주어와 ‘NP₂’의 ‘가던’의 주어가 다른 경우고, (2.3)은 ‘본다’의 주어와 괄호안의 ‘가지고’와 ‘NP₂’의 ‘가던’의 주어가 다른 경우다.⁹⁾

이와 같이 3연은 구조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한 동사 ‘가지고’의 통사적 특징을 고려하면(2.2항 참조), 3연의 주어는 (2.1)에서와 같이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가지고’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구절은 (2.2)나 (2.3)에서와 같이 주어를 둘로 해석될 수도 있다.¹⁰⁾ 그런데 주어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는 ‘가던 새’

9) 이인모(1973:565)는 ‘장글란 가지고’의 주체를 ‘새’에 비유된 ‘사람’으로 보고, ‘농구를 가지고’라 하였으므로 ‘남자’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10) 3연은 대체로 (2.2)와 같이 파악되었다. 대표적으로 정병욱(1967:810)에서는 ‘가지고’의 주체를 “그러나 비록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새일망정 그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영무든 장기」 즉 「녹슨 武器」를 손에 들고 가는 새를 바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화자 자신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인모(1973)과 이승

의 의미가 무엇이나와 직결되기도 한다¹¹⁾.

2.2. 3연의 해석에서 부딪히는 또하나의 문제는 '임무든 장글란'과 '가던 새'의 형태와 의미 문제다. '임무든'은 그 형태상 '미상'으로 풀이되기도 하였으나(양주동 1955) '날이 무던'(김형규 1965)¹²⁾, '잇(苔) 묻은'(양주동 1963, 김형규 1965, 전규태 1968, 서재극 1968, 박병채 1994)¹³⁾, '잉어 물던'(서수생 1963) 등¹⁴⁾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장글랑'은 '쟁기'(서재극 1968, 전규태 1968, 박병채 1994), '여인의 粧刀'¹⁵⁾, 무기(정병욱 1967)¹⁶⁾ 또는 '잠개(兵器)'(김형규 1965) 등¹⁷⁾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임무든 장글란'은 대체로 '녹슨 농기구'로 해석되어 왔으나, '녹슨 낚시'(김사엽)¹⁸⁾, '잉어 물던 장기(=낚시)'(서수생 1963)¹⁹⁾, '녹슨 무기'(정병욱

명(1975)에서는 이를 (2.3)과 같이 파악하였다. 이인모(1973:565)는 '장글란 가지고'의 주체를 '가던 새' 곧 '새'로 보고, 이 '새'를 '사람'의 비유어로 보았다. 한편, 이승명(1975:128)은 '-으란'이 주로 비밀인칭어 주체에 호응하므로 '가지고'의 주체는 '새'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새가 무거운 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문학의 상징성으로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11) 이에 대하여는 3항 참조.
- 12) 김형규(1965:313)에서는 이를 '무되다(鈍)' 앞에 접두사 '임'이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 13) 이것은 '임무든'의 '임'을 '잇 묻은'의 '잇'이 '무든' 앞에서 자동동화된 것으로 본 것임.
- 14) 자세한 것은 양주동(1955/63:14, 1963:314), 김형규(1965:313), 전규태(1968:109), 박병채(1994:222), 서수생(1963:8) 등을 참고할 것.
- 15) 고영근(1997:459)의 (주.7)에서 인용.
- 16) "……비록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새일망정 그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임무든 장기' 즉 '녹슨 무기'를 손에 들고 자기 걸을 떠나는 새를 물고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정병욱 1984:107) 참조.
- 17) 자세한 것은 박병채(1994:223), 김형규(1965:313), 전규태(1968:110) 등을 참조할 것.
- 18) 김사엽(1954:264)은 이를 "고기 잡는 쟁기(器具)"로 보고, 3연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가던 새 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그림자 이끌며 지나가는 새 본다. 고기잡는 쟁기(器具)를 가지고 물가에 서서 고기를 잡음도 잊고, 우두머니 물만 바라보며 떠가는 새 그림자를 보노라."
- 19) 서수생(1963:8)에서는 '임무든'의 '임'은 '잉어(鯉魚)'로 그리고 '무든'은 '물던'으로 보아, 이를 '잉어 물던/이어 물던'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장기'는 '도구'의 뜻을

1967)²⁰⁾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해석에 따라 ‘물아래’는 일반적으로 ‘물 아래 지역’ 즉 ‘평원지대’(정병욱 1967) 또는 ‘하류지역’(서재극 1968) 등으로 해석되었으나, ‘장기’를 ‘뉘시’로 보아 ‘물밑에’(서수생 1963)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2.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임무든 장글란’은 녹슨 농기구인가 아니면 병기인가.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인가 아니면 ‘갈던 사래’인가. 그리고 ‘물아래’는 하류 평원지대인가 아니면 ‘물밑에’의 뜻인가. 일반적으로 해석되듯 ‘임무든 장글란’이 ‘녹슨 쟁기’의 뜻이라면 녹슨 쟁기를 가지고 바라보는 객체가 ‘새’(鳥)라는 문맥은 수궁하기 어렵다. 만일 3연이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 사실적 기술이라면 ‘녹슨 쟁기’를 가지고 새(鳥)를 바라본다는 어색한 문의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종래 3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였던 것은 바로 이런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래(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가 ‘土/野’의 의미를 띠는 형태소라면, 이러한 의문은 자연히 극복되어 의미 맥락이 자연스럽게 해석상 별문제가 없게 된다.

2.4. 그런데 ‘새’의 형태와 의미는 앞의 ‘가지고’의 통사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동사 ‘가지고’가 후행하는 명사구의 의미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의 의미는 선행한 동사 ‘가지고’의 통사 특징과 연관지어 보아야 하고, 이를 떠나서는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가지고’가 후행 명사구와 어떤 의미적 제약 관계를 보이는가를 살피기 위해 현대 국어의 몇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1.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

나타내는 ‘장기’로 보아 ‘임무든 장글란’을 ‘양어 물던 기구(장기)’ 곧 ‘뉘시’로 보았다.
20) 이에 대하여는 (주.8) 참조.

2. 희망을 가지고 살자.
3. 연필을 가지고 왔다.
4. 철수는 열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5. 칼을 가지고 나무를 깎았다.
6. 장대를 가지고 달을 따러 간다.
7. 회호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다.
8. 색종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었다.
9. 콩을 가지고 장을 담갔다.

(3.1-3)에서와 같이 '가지고' 뒤에 다른 동사가 직결된 '가지고+동사'의 구성일 때 '가지고'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소유]를 나타낸다. 그러나 (3.5-9)에서와 같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와 같은 구조에서 '가지고'는 뒤에 이어지는 행동의 [도구] 또는 [재료]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다음 (4)와 같은 문장에서 빈 칸의 'A'와 'B'에 생략된 어휘는 (5)에서와 같이 '가지고' 앞에 온 도구명사의 기능이나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동작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1. 큰 도끼를 가지고 (A)하던 (B)를 본다.
 2. 공을 가지고 (A)하던 (B)를 본다.
 3. 연필을 가지고 (A)하던 (B)를 본다.
 4. 톱을 가지고 (A)하던 (B)를 본다.
 5. 삼을 가지고 (A)하던 (B)를 본다.
 6. 빗자루를 가지고 (A)하던 (B)를 본다.
 7. 가위를 가지고 (A)하던 (B)를 본다.
-
- (5) 1. 큰 도끼를 가지고 (나무)하던 (산)을 본다.
 2. 공을 가지고 (놀)던 (운동장)을 본다.
 3. 연필을 가지고 (그리)던 (그림)을 본다.
 4. 톱을 가지고 (자르)던 (나무)를 본다.
 5. 삼을 가지고 (파)던 (화단)을 본다.

6. 빗자루를 가지고 (쓸)던 (마당)을 본다.
7. 가위를 가지고 (마르)던 (바느질감)을 본다.

위에서 예문 (4)와 (5)의 (A)와 (B)에 들어갈 어휘들은 모두 동사 ‘가지고’ 앞에 온 도구명사와 의미적 유연성을 보이는 것들이다. (5)의 예로 보아 이들 문장은 문맥상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6) 1. NP를 가지고 (B)에서 (A)하였다.
2. NP를 가지고 (B)를 (A)하였다.

(5)와 (6)을 비교하여 보면, (5.1-2)는 (6.1)에, 그리고 (5.3-7)은 (6.2)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6)의 구조에 따라 (5)를 다시 쓰면 다음 (7)과 같고, 이를 통해 (B)에 들어갈 어휘는 행동이 이루어졌던 ‘장소’나 혹은 어떤 행동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곧, (7.1-2)에서는 나무를 하던 ‘산’이나, 놀이를 하던 ‘운동장’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그리고 (7.3-7)에서는 각 행위의 대상이 된 ‘목적어’에 상응하는 명사들이 위치하게 된다.

- (7) 1. 큰 도끼를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했다.
2.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놀)았다.
3.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었다.
4.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었다.
5. 삼을 가지고 (화단)을 (파)았다.
6.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쓸)었다.
7. 가위를 가지고 (바느질감)을 (마르)었다.

만일 ‘가지고’가 보이는 이러한 통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런 문장은 (8)과 같이 비문이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 (8) 1. 큰 도끼를 가지고 날아가던 새를 본다.
 2. 붓을 가지고 넘어가던 고개를 본다.
 3. 연필을 가지고 웃던 친구를 본다.
 4. 톱을 가지고 선풍기를 본다.
 5. 삼을 가지고 먼 산을 본다.
 6. 빗자루를 가지고 책을 본다.
 7. 가위를 가지고 노래하던 친구를 본다.

이들 예를 통해 우리는 '도구명사+를 가지고 (A)하던 (B)을/를 본다.'와 같은 구조에서 (A)와 (B)에 들어갈 어휘는 선행한 도구명사의 의미기능과 상응하는 어휘가 호응되어야만 자연스럽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격의 문장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가지고'의 이러한 통사적 특징이 어디까지 소급되는지는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나 근대국어에 나타나는 '가지고'의 용례들²¹⁾로 미루어 비록 그 구조가 3연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대국어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9) 1. 여러가짓 씨오맷 연자을 가지고 圍繞호야(석보 23:50a, 노상 30a)
 2. 나히 열여덟이러니 호미를 가지고 범을 빠로더니(동신효 5:37ㄴ)
 3. 난공이 도치 가지고 범을 주겨 뼈(동신열 1:59ㄴ)
 4. 늑덕이 칼 가지고 범을 티니(동신열 1:58ㄴ)
 5. 복슈호리라 호고 매를 가지고 도적을 티니(동신열 5:13ㄴ)
 6. 종돌히 삶고 광이를 가지고 혼 분묘를 파(太平 19ㄱ)
 7. 난공이 도치 가지고 범을 주겨 뼈 구호니라(동신열 1:59b)
 8. 막실이 막대를 가지고 바른 나아가 브르지지며 범을 뽕춘대(동신효 5:85b)
 9. 매를 가지고 도적을 티니 도적이 주기니라(동신열 5:13b)
 10. 화살 가지고 누희 올라 네 사름을 쏘아 주기고(동신충 1:32b)

'가지고'의 이러한 통사 기능으로 보아 '임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쟁기'든 '늑슨 병기'든 도구명사의 명사구가 되고, 이에 따라 뒤의 '가던 새'

21) 근대국어의 일부 용례는 홍윤표 외(1995)에서 가져온 것임.

는 당연히 앞의 도구명사의 의미 기능에 호응되는 명사구로 해석되어 문맥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관점에서 3연에 대한 저간의 해석은 반성되고,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는 풀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가던 새'의 형태와 의미

'가던 새'의 의미는 '가던'과 '새'의 형태와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은 앞의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와의 통사 관계가 고려하여야만 된다.

3.1. 지금까지 '가던'의 형태와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하나는 이를 '가-(行, 去)--더-(선어말어미)--ㄴ(관형형어미)'와 같이 '가다'의 관형형으로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갈-(耕)--더--ㄴ'과 같이 동사 '갈다(耕)'의 활용형으로 본 것이다. 종래 '가던'에 대한 분석은 전자가 주류를 이루었고²²⁾, 후자와 같은 분석은 서재극(1968)에서 제시되고 박노준(1990)에서 수용되었을 뿐이다.²³⁾

'가던'의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가+더+ㄴ'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아래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동사의 어간말 자음 'ㄹ'은 선어말어미 '-더-'나 어미 '-ㄴ' 앞에서 탈락되었음을 보여준다.

22) '가던 새'를 '가던 새(鳥)로 보더라도 그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이를 자신의 분신(정병욱 1977)으로 보거나 '가던 사람'(이인모 1973)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이인모(1973:565) 참조.

23) 박노준(1990:166)은 서재극(1968)의 견해에 따라 '가던새'는 '갈던 새래', '몰아래'는 '몰건너(몰아래)마을'로 보아 '가던새'를 화자가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할 삶의 터전으로 해석하였다.

- (10) 1. 도헌 고즈란 꼭디 말오(월석 1:9b)
2. 녀느 夫人넛 아둘 네히다 어디더니(월석 2:4-5)
3. 다룬 나래 떠든 아드리 값간도 우디 아니더이(내훈 1:54a)
4. 노디 말며(내훈 1:53a)
5. 노디 아니흐며(내훈 1:52a)
6. 여섯 길헤 횃도녀 값간도 머므디 못흐며(월석序 4b)
7. 하늘홀 불러 ㅁ장 우더니(삼강 열녀 330b)

이러한 어간말자음 'ㄱ'의 탈락현상으로 미루어 '가던'도 '갈(耕)--+-더 --+-ㄴ'에서 어간말자음 'ㄱ'이 탈락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2. '가던'을 이와 같이 분석할 때 문제는 뒤에 통합되는 명사 '새'의 의미자질이다. '가던'이 '갈던(耕)'의 뜻이라면 '새'는 동사 '갈다(耕)'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합당한 의미를 보여주는 형태소 '새'의 용례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²⁴⁾ 그러므로 서재극(1968)에서는 이를 '사래'로 풀이하고, '사래'가 '새'로 나타난 용례를 문증할 수 없으나, '누리>뉘, 나리>내'와 같은 변화형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⁵⁾

그런데 이러한 추정과는 달리 '새'가 그 형태 그대로 하나의 형태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있어 주목된다.²⁶⁾

24) 예컨대 고어사전(남광우 1960), 이조어사전(유창돈 1964), 17세기 국어사전(홍윤표 외 1995)등에 이 낱말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5) 이에 대하여는 (주.5)를 참조할 것.

26) 이 외에 '野祭'를 가리키는 '새남'의 '새'도 혹 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지 과제로 남는다. '새남'은 '지노귀새남(指路歸散陰)'의 준말로, '지노귀새남'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천도시키기 위하여 하는 굿을 가리키는 말이다(신기철·신용철 : 표준국어사전).

(11) 野綠豆 새녹두(재물보 8:750²⁷⁾)

野菘豆 새녹두(물명고 無情類-草)

野綠豆 새록두(광재물보 穀部-菽豆類)

(12) 王瓜 서외[짜외](재물보 8:831)

(11)은 각각 재물보(국도본)과 물명고 그리고 광재물보에 수록되어 있는 예다. 이들은 한자어 ‘野綠豆/野菘豆’에 대응되는 고유어로 ‘새녹두/새록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대응관계로 보아 ‘새’는 ‘野’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응관계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들 자료의 연대²⁸⁾로 미루어 적어도 중세국어에는 ‘野’의 의미를 띠는 형태소로 ‘새’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소 ‘새’의 존재는 (12)의 예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12)는 한자어 ‘王瓜’에 대응되는 고유어로 ‘서외’(국도본)를 보여주는데, ‘王瓜’는 일명 ‘土瓜’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본에서는 ‘王瓜’에 대한 고유어로 ‘짜외’를 대응시키고 있어, ‘서외’가 ‘짜외’라고도 불리웠음을 알 수 있고, 이들 대응에서 ‘서’는 곧 ‘짜’를 의미하는 형태소로, ‘새’의 변이형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예로써 우리는 종래 ‘새’를 명사 ‘새(鳥)’로 보아 온 견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곧, (9), (10)에서 형태소 ‘새’와 ‘서’를 확인하고 대응 한자어에서 ‘野’ 또는 ‘土’의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가던’을 ‘갈던(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던 새’는 ‘갈던+새’로 분석되고, 그 의미는 ‘갈던 땅(밭/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27) 재물보에는 몇 개의 이본이 있다. 국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가리킨다. 이 외에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학부본과 성대본, 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에 소장된 장서각본 등이 있다. 이들 이본에 대하여는 김근수(1980)을 참조할 것.

28) 재물보(정조 22년, 1798), 물명고(순조때), 광재물보(연대미상. 재물보를 보완한 것이므로 18세기 이후임).

3.3. '가던 새'를 이와 같이 분석하고 해석하였을 때, 우리는 위에서 본 동사 '가지고'의 통사적 특징과 관련시켜 선행구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와 후행구 '가던 새'의 의미 맥락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즉 '임무든 장글란'은 '가던 새'와의 의미적 유연성으로 보아 '농기구'로 해석되므로, 3연은 '갈던 땅 갈던 땅 본다 물 아래 갈던 땅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땅 본다'²⁹⁾ 정도로 해석된다.

3.4. '새녹두', '셔외'에서 본 바와 같이 국어에는 '흙'의 의미를 띠는 형태소 '새'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어휘는 소멸의 길을 밟아 그 자취를 남기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13)의 시조³⁰⁾에 나타나는 '푸새'의 용례도 이러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13) 1.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기 뉘 짜해 닛드니
2. 암율이 푸새엿 증싱인들 너 죽을 쓸 모르는다

위에서 '푸새엿 것'과 '푸새엿 증승'은 '푸새+에/예(처격)+ㅅ+NP'의 구성인데, 이러한 구성을 보여주는 예는 비교적 많이 확인된다(이덕홍 1981).

- (14) 길ᄃᆞᆫ 百姓(용가 57), 부뎡나라헛 功德(석보 9:10b), 무뎡ㅅ서리엿나모(월석:10b), 一切ㅅㅅㅅㅅㅅ性(능엄 1:37), 蓮ㅅ줄기엿실(금강삼 2:67), 나뭇그뎡뉘(박통사 상 88), ᄃᆞᆫᄃᆞᆫㅅㅅㅅㅅㅅ결(두시10:33a), 楚國엿天子氣(용가 39), 전생엿일(석보 6:9a), 뎡엿필(월인 4), 法界엿뎡(월석 8:21), ㅅㅅㅅㅅ 疑心(능엄 1:29a), 世間엿 萬法(금상 삼 2:3b), 누넛病(선종 서 10a), ㅅㅅㅅㅅㅅ源(관음

29) '본다'에 대하여는 (주.3.5)를 참조할 것.

30) 이들 시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首陽山 바라보며 夷齊를 恨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호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기 뉘 짜해 닛드니<성삼문>
뎡노라 부나뵤야 네 쫓을 내몰래라라
흔 나뵤 죽은 後에 또 흔 나뵤 쫓아온여
암율이 푸새엿 증싱인들 너 죽을 쓸 모르는다<이정보>

26b), 恒河엿몰애(아미타 19a), 後엿學者(금강 서6b), 盤엿저(동동), 알팍륙성돈(박통사 상 37), 宮中엿웃(두시 11:23a), 희롱엿일(번역소학 8:21a), 惡道엿몹(염협 15b), 法엿 財寶(칠대 14b)

위와 같은 'NP+치격+ㅅ+NP'의 구성예들로 미루어 '프새엿것'은 의미상 '푸새에 난 것' 정도로 해석해야 문맥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곧, '푸새'는 '풀'이 아니라 '푸새엿 것'인 고사리가 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로 보아야 치격의 '-에'가 통합된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냥 '풀'로 보아 '풀엿것' 정도로 읽는다면 그 구성 자체도 의문스럽고³¹⁾ 또한 시조 종장의 문의에 맞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은 '프새엿 즐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실제로 '푸새'의 형태와 의미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프새'에 대하여 유창돈(1964)과 정병욱(1980)에서는 그냥 '푸새'로 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세영(1942)에서는 '풀의 옛말'로 그리고 남광우(1960)에서는 '풀' 또는 '푸성귀'로 풀이하였다.³²⁾ 그러나 문헌에 나타난 '푸성귀'의 용례를 보면 '프새'와 '푸성귀'를 동의어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에서 [장소성]이란 의미자질을 찾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 (15) 1. 沙塞는 北노 7새 프성귀 업시 몰애뿐 잇는 싸히니(금삼 3:48)
2. 衆生을 프성귀만 너기느니(석 6:28)
3. 프성귀며 들그리며 터러기라도 : 草芥塵毛(능 3:105)
4. 가식와 프성귀왜라(월 10:117)
5. 프성귀와 사름과 중싱개 : 草芥人畜(능 2:34)
6. 너를 보더 프성귀7터 흐뜻다 : 視汝如수 고(杜重 2:61)

31) '푸새'가 '풀'이라면 '푸새엿것인들'은 '푸새일망정'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고사리를 가리켜 '풀엿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직관상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고사리는 夷齊가 은거하던 수양산에서 자생하던 것임을 고려하면 '푸새'가 처소명사로 해석되어야 자연스럽다.

32) 남광우(1960:463)에서는 '푸'는 '풀'의 사소리 위에서의 르탈락형이고 '싱'는 '마른 풀'로 보아 '푸싱'을 '풀'의 통칭으로 보았다.

더구나 '푸새'는 '프'와 '새'의 복합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와 '새'의 모음이 조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새'의 '새'는 역시 '野' 또는 '土'의 의미를 띠는 형태소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5. 3연 해석에서 부딪히는 마지막 문제는 '가던'과 '본다'의 시제상의 불일치와 '본다'의 어미의 정체다.

'가던'과 '본다'의 시제상의 불일치는 '가던'의 주어를 '새'로 볼 때 야기 되는 문제다. '가던'은 과거형이고 '본다'는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았느냐'와 같이 과거형으로 풀이하기도 한다(고영근 1997)³³⁾.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를 '野' 또는 '土'의 의미의 형태소로 보면,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가던(耕)'의 시제는 당연히 과거이어야 하고, '본다'의 시제는 현재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다'의 어미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본다'의 어미는 3연의 문의를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 서술형(김형규 1965, 서재극 1968) 또는 의문형(양주동 1955, 박병채 1980)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형태적으로는 의문형에 속하지만, 문맥상 이를 작자 자신의 심정과 생활을 노래한 것으로 보면 현재서술형으로 해석된다.³⁴⁾

4. 마무리

청산별곡 해석에는 해명되어야 할 여러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3연은 그 중의 하나다.

33) 고영근(1997:459)에서는 2인칭 의문형으로 보고, '보았느냐'와 같이 과거형으로 풀이하고 있다.

34) 서재극(1968:8)은 '본다'를 일반적으로 의문형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는다'형의 현재서술은 없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김형규(1965:313)에서는 歌意로 보아 이를 현재로 해석하였다.

종래 ‘임무든 장글란’은 대체로 ‘이끼 묻은(녹슨) 쟁기’로, 그리고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鳥)’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3연은 ‘녹슨 쟁기를 가지고 날아가던 새를 본다’와 같은 어색한 문맥으로 이끌어,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가던’은 중세국어의 ㄹ중성어간 동사들의 중성 ‘ㄹ’이 선어말어미 ‘더’ 앞에서 탈락했던 현상으로 미루어 ‘갈(耕)--더--ㄹ’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새’는 재물보류의 어휘 목록 중 野綠豆에 대응하는 고유어 ‘새녹두’에서 ‘土’나 ‘野’의 의미를 띠는 형태소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가던 새’는 ‘갈던 새’ 곧 ‘갈던 들(땅)’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가던 새’를 이와 같이 해석하면, ‘임무든 장글란’은 3연의 문장구조와 ‘가지고’의 통사 특징으로 보아 ‘가던 새’와 의미적 유연성을 띠는 도구명사로 해석되므로, ‘이끼 묻은(녹슨 쟁기)’ 정도로 해석되어, 호응 관계가 명확해진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3연은 ‘녹슨 쟁기를 가지고 날아가던 새를 본다’와 같은 어색한 문맥은 지양하고, ‘녹슨 쟁기를 가지고 갈던 땅을 본다’와 같은 자연스러운 사실적 기술로 풀이할 수 있다.

이상의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가던’은 중세국어의 ㄹ중성어간동사의 활용의 특징에 비추어 ‘갈던’(=갈--더--ㄹ)으로 분석될 수 있다.
- 2) ‘새’는 재물보류의 ‘野綠豆 새녹두’와 ‘王瓜(=土瓜) 새외’의 어휘 대응에서 [野] 또는 [土]의 의미자질의 형태소로 추정할 수 있다.
- 3) ‘가지다’ 동사의 활용형 ‘가지고’는 ‘(A)를 가지고 (B)하던 (C)를 본다’와 같은 구조에서는 A가 동작B의 기능을 나타내는 도구명사이어야 문맥이 자연스럽고, ‘가지고’의 통사 특징상 A와 B는 의미적 유연성을 띠게 된다.
- 4) ‘가지고’의 통사 특성과 ‘가던 새’의 의미에 따라 ‘임무든 장글란’은 ‘가던’의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구로 해석된다.
- 5) 이에 따라 3연은 ‘녹슨 쟁기를 가지고 물아래 갈던 들(땅)’ 정도로 해석된다.

- 6) 이상의 해석에 따라 '갈던'과 '본다'의 시제의 불일치에 따른 종래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97), 중세어자료강해, 집문당.
 김근수(1980), “재물보 해제”, 재물보(한국학고사전총서14), 아세아문화사.
 김사엽(1954), 개고 국문학사, 정음사.
 김상익(1965), “청산별곡연구”, 국어국문학 30호. 국어국문학회.
 김완진(1966), “청산별곡의 “사슴”에 대하여”, 낙산어문 1집,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연구소.
 김완진(1971), “청산별곡의 결연에 대한 일고찰”, 장암 지현영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호서출판사.
 김완진(1982), 언어와 문학, 탑출판사.
 김학성(1980), 한국고전 시가의 연구, 원광대출판부.
 김형규(1965), 고가요주석, 일조각.
 남광우(1960), 고어사전, 동아출판사.
 문세영(1942),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영창서관.
 박노준(1985), “청산별곡의 재조명”, 한국학논집 7,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박노준(1990),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박병채(1994), 새로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서수생(1963), “청산별곡 소고”, 교육연구지 1, 경북대 사범대.
 서재극(1968), “여요 주석의 문제점 분석”, 어문학 19. 어문학회.
 성현경(1972), “청산별곡고”, 국어국문학 58-60 합병호, 국어국문학.
 신동욱(1982), “청산별곡과 평민적 삶의식”,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양주동(1955), 개정판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윤강원(1983), “청산별곡의 새로운 이해”, 광장.
 이덕홍(1991), “국어사이시옷의 문헌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구(1974), 고려가요의 연구, 신아사.
 이승명(1975), “청산별곡 연구”,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이인모(1973), “청산별곡 내용의 재검토”,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장지영(1955), “옛노래읽기(청산별곡)”, 한글 110, 한글학회.

전규태(1968), 고려가요, 정음사.

정병욱(1977),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정병욱(1980),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홍윤표 외(1995), 17세기 국어 사전, 한국정신문화원.